

칠레 농업의 현황과 전망

1. 칠레 농업 개요

□ 천혜의 기후·지리 조건, 국가지원 등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

- 칠레는 7천 5백만 헥타르(한반도의 3.4배)의 넓은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어 다양한 지형, 기후와 토양 등을 활용하여 1년 내내 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등 농업 여건이 매우 양호함.¹⁾
 - 특히, 주요 교역대상 지역인 유럽과 북미와는 계절이 정반대이어서 이들 지역에 필요한 농산물을 적기에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 농업 부문은 GDP의 9.5%, 총 노동인구의 11.6%를 차지하여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힘입어 주력 수출산업으로도 각광 받고 있음.
- 농산품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기술 발달 등에 힘입어 생산량이 1990년대에 비해 품목별로 약 30~60% 증가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제품의 총 수출액(와인 제외)도 2006년 9.8억 달러에서 2007년 11.7억 달러, 2008년 16.1억 달러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와인은 포도 품종 개량, 품질·생산성 개선, 원산지 표시제 실시 등에 힘입어 주요 수출품으로 발전하여 2008년 수출액이 14억 달러를 기록함.
- 정부는 농업부 산하기관 및 관련 부처를 통해 생산성 및 기술개발 프로그램, 농촌개발프로그램, R&D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등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임.

1) 국토 7천 5백만 헥타르는 지형별로 사막지대 33%, 초원 및 관목지 27%, 산림지 21%, 농지 6%, 늪지 6%, 적설 및 빙하 지대 6%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후는 해안 및 동부지역은 열대, 중부산맥은 온대이며, 일부 온난 빙하지역도 있음(칠레쪽 파타고니아 빙하지대).

2. 산업 현황

□ 곡물 생산은 감소 추세

- 곡물은 밀, 콩, 옥수수, 귀리, 감자 등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의 주축을 이루었으나 1990년 이후 옥수수와 귀리를 제외한 대부분 곡물의 경작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 특히 밀은 1990년까지 총 경작면적의 약 47%를 차지하는 최대 작물이었으나 공급과잉으로 정부가 가격인하조치를 단행한 이후 경작면적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여타 곡물도 시장개방으로 저가 농산물이 수입됨에 따라 성장세가 급격히 저하되었음.

<표 1>

연도별 곡물 경작면적

단위: 헥타르

구 분	1990	2000	2004	2006	2008
밀	466,480	414,000	419,660	231,785	280,644
콩 류	115,460	41,170	27,790	15,495	19,551
옥 수 수	99,590	82,550	134,280	125,589	128,211
귀 리	76,540	89,610	76,680	82,441	101,079
감 자	59,330	63,110	55,620	54,528	45,078
근 대 뿌 리	39,788	46,400	31,410	20,916	12,869
보 리	31,710	15,370	21,500	18,677	18,513
쌀	29,750	28,550	25,030	21,765	23,680
카 늘 라	29,480	22,800	12,130	11,490	25,135
눈 동 의 나 물 2)	13,540	1,800	1,780	3,548	4,355
층 층 이 부 채 꽃	8,270	16,290	25,300	21,148	10,283
기 타	38,177	25,784	30,170	27,546	16,290
총 면 적	986,305	829,344	834,270	610,232	671,050

자료: 농업정책조사국 (ODEPA: Agrarian Policies and Studies Bureau)

- 곡물별로는 1990년대 주요 작물이었던 근대 뿌리와 밀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 옥수수는 2000년대 이후 종자용 옥수수의 수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제1의 곡물로 부상하였음. 기타 작물은 2000년까지는 생산량이 증가하다가 최근 5년간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 입금화(立金花) 또는 원송이나물로도 불리는 약제용 독초

- 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FAO)에 따르면 칠레는 2007년 기준으로 콩콩이부채꽃(lupine) 생산량 세계 4위, 옥수수 15위, 밀(라이밀) 15위, 귀리 17위, 콩(깍지콩) 25위 등을 기록하였음.

○ 헥타르 당 생산량은 지속적인 품종 개량과 재배방법 개선의 결과, 2008년 기준 밀 4.1톤, 귀리 3.4톤, 옥수수 10.5톤, 감자 20.5톤, 쌀 5.4톤, 카놀라 3.1톤 수준으로 1990년에 비하여 20~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연도별 곡물 생산량

단위: 톤

구 분	1990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옥수수	835,723	778,498	1,507,766	1,381,894	1,381,479	1,365,472	1,345,653
밀	1,588,677	1,780,157	1,851,940	1,403,689	1,103,497	1,237,861	1,145,290
근대뿌리	2,498,659	2,882,980	2,597,771	2,199,783	1,612,102	1,208,496	1,042,418
감자	843,938	1,210,044	1,115,736	1,391,378	831,054	965,940	924,548
귀리	206,684	344,527	357,352	435,041	341,646	383,759	344,212
쌀	117,115	143,261	116,832	160,315	110,280	121,400	127,311
카놀라	57,680	67,371	41,225	47,151	43,399	66,590	78,501
보리	106,959	65,454	102,417	136,700	87,798	95,869	73,424
콩류	137,615	65,160	48,579	54,217	23,396	23,689	30,883
콩콩이부채꽃	14,482	37,019	63,246	70,479	46,617	31,623	12,311
눈동의나물	32,405	3,131	2,793	5,284	7,451	7,607	10,007
담배	14,678	8,534	9,850	8,349	8,470	6,214	5,626

자료: 농축산청 (SAG: Agriculture and Livestock Service)

□ 과일 재배 및 생산량 증가

○ 칠레는 여름철에는 고온건조하고 일교차가 크고, 겨울철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드물어 과일의 당도가 높으며, 재배기간 중 적은 강우량으로 병해충이 적어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등 과일의 품질이 좋음.

- 과일농장의 규모는 평균 15헥타르 수준으로서 대규모 기업농이 주축을 이루어 생산부터 포장단계까지 조직화되어 있으며, 10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농가들도 선별 및 포장단계에서는 대형 전문 포장센터 등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음.
- 최근 과일의 경작면적은 곡물의 경우와는 달리 증가 추세이고 특히 포도, 배, 복숭아의 경작면적 증가율이 높으며, 과일 생산량에 있어서는 포도, 사과, 아보카도, 키위, 자두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표 3> 연도별 주요 과일의 경작면적 및 생산량

단위: 천 헥타르, 천 톤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포도	경작면적	48	48	49	51	51	51
	생산량	1,750	1,985	1,900	2,250	2,300	2,350
사과	경작면적	35	35	36	35	35	35
	생산량	1,150	1,250	1,300	1,400	1,370	1,390
복숭아	경작면적	13	13	13	13	13	13
	생산량	293	304	311	310	295	270
자두	경작면적	14	14	14	14	14	15
	생산량	210	215	233	240	244	n/a
아보카도	경작면적	23	24	24	27	27	27
	생산량	140	140	160	190	220	250
키위	경작면적	7	7	7	7	7	9
	생산량	128	125	145	150	160	170
배	경작면적	9	8	8	7	7	7
	생산량	203	205	210	200	180	150

자료: 경작면적 ODEPA, 생산량 FAO 통계정보

□ FTA 체결과 엄격한 품질관리 통해 과일 수출 급성장

- 과수산업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다양화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여 씨없는 포도를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도 병행하고 있음.

- 더불어, FTA 체결국의 증대로 해외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칠레는 중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과일 수출국으로 성장하였음.
 - 세계 과일 시장 점유율(2008년 수출)³⁾ : 중국(19%), 칠레(18%), 미국(13%), EU(12%).
 - 2003년 발효된 EU와의 FTA로 유럽 내 무관세 진입이 가능해져 포도, 복숭아, 사과 등 거의 대부분의 과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 한국, 2006년 중국, 2007년 일본과의 FTA 발효로 아시아지역으로의 과일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
- 한국의 대 칠레 과일 수입액은 2004년에 1천 6백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FTA 발효 이후인 2005년에는 2천 8백만 달러로 급증하였고 이후에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 2008년에 7천 2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포도의 경우 2008년 한국의 포도 총수입액의 92%를 칠레산이 차지하였음.
- 칠레의 과일 수출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2008년에는 수출액이 3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수출물량은 24억 톤에 달하였음.
 - 포도는 전체 과일 수출량의 35%, 수출액의 38% 이상을 각각 차지함.

<표 4> 주요 과일의 연도별 수출 추이

구 분	수출액 (백만 달러)			수출량 (천 톤)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포도	989	1,018	1,256	823	776	836
사과	432	560	657	725	774	770
블루베리	131	165	208	15	20	35
체리	105	127	191	22	26	51
키위	127	145	172	147	160	160
배	78	97	135	120	119	133
아보카도	113	207	113	110	146	84
자두	92	109	110	80	105	88
간호두	46	57	94	5	7	7
복숭아	53	60	74	46	52	62

자료 : 관세청(Servicio de Aduanas).

3) 미국 농업부(USDA) 해외 농업 통계 활용하여 정리.

□ 양질의 포도원 재배로 세계 5위의 와인 수출국으로 부상

- 칠레는 지형적으로 양질의 포도원 재배가 가능한 강점을 활용하여 17세기부터 와인을 일부 수출하였으나, 1970년대 들어서야 주요 산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 중반 이후 포도원 재배면적과 생산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됨.
- 와인 생산용 포도의 재배면적은 총 116,793 헥타르로서 이중 76%가 레드와인용 포도(Cabernet Sauvignon, Merlot 등) 재배지이며, 24%는 화이트 와인용 포도(Sauvignon Blanc, Chardonnay 등) 재배지임.
- 현재 칠레에는 전국적으로 139개의 와인 제조업체가 있으며, 주요 3대 기업⁴⁾이 78%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함. 이 중 Concha y Toro는 2009년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팅 회사인 인텐저블 비즈니스(Intangible Business)가 실시한 기업 브랜드 지명도 설문조사 결과, 와인 브랜드 파워 부문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하였음.
- 와인 수출액은 2008년에 14억 달러⁵⁾(병 와인 11억 달러 포함)로서 2003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수출 지역별로는 미국과 유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남미 와인 특유의 강한 맛을 지양하고 이를 미국, 유럽인들의 기호에 맞게 변화시킨 칠레 와인의 세계화 전략의 결과이기도 함.
 - 2008년 중 와인의 대륙별 수출비중은 유럽 51%, 북미 23%, 중남미 15%, 아·태평양 11%임.
 - 주요 수출대상국은 영국(21.8%), 미국(17.1%), 네덜란드(5.3%), 브라질(5.0%), 캐나다(4.6%) 등으로, 상위 2개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약 40%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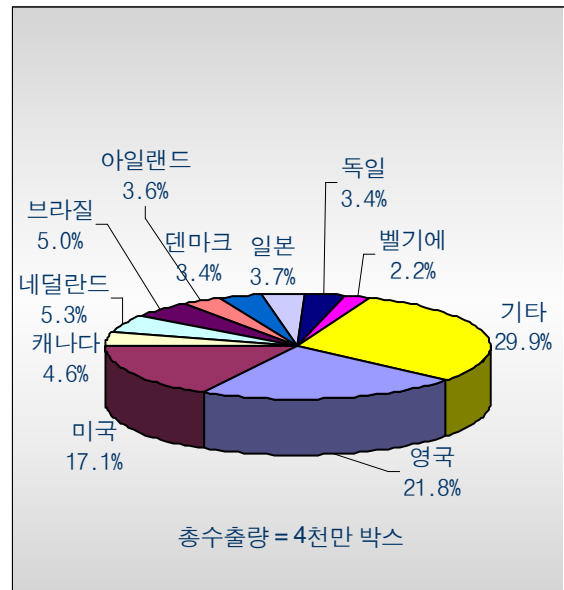
4) 2008년 기업별 자국 시장 점유율 : Concha y Toro(29.7%), Santa Rita(28.7%), San Pedro(20.4%), Tarapaca(2.6%), Santa Carolina(2.0%), 기타(16.6%)

5) 칠레는 세계 제 11위의 와인 생산국이자, 세계 5위의 와인 수출국임.

<표5> 수출국별 와인 수출액 (백만 달러)

국 가	2006	2007	2008
영 국	146	212	205
미 국	148	183	193
캐 나 다	48	59	69
네 델 란 드	38	49	62
브 라 질	36	50	51
아 일 랜 드	38	43	50
덴 마 크	35	41	50
일 본	24	32	42
독 일	37	51	39
벨 기 에	23	27	31
기 타	247	328	366
총 계	824	1,080	1,164

<그림1> 2008년 국가별 수출 비중



주: 병 와인 기준.

자료: 칠레와인협회(Wines of Chile).

□ 꾸준한 정책지원 실시

- 농업부문(수산업 포함)은 대GDP 비중이 2003~08년 중 4~5%대에 머무르고 있으나, 칠레 정부는 산업부문간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지출의 부문별 지출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농수산업 부문에는 재정지출의 약 1.3~1.4%를 지속적으로 배정하고 있음.

- 농수산업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 1,078억 페소(1999년) → 2,696 억 페소(2008년)

- 정부는 농업부와 유관기관을 통하여 관개, 토질 회복, 생산성 제고와 기술개발, 농촌 개발, R&D 및 교육훈련 등 농업 관련분야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2009년에도 금융위기에 불구하고 농업 부문에 책정된 예산은 2008년 대비 30% 늘어난 3,506억 페소로, 상당 부분이 품종 개량 및 생산기술 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임.

□ **적극적 개방정책으로 신규 시장 지속적으로 확보**

- 칠레는 1970년대부터 경제개방정책을 실시하는 등 주변국에 비해 일찍이 자유무역주의를 도입하였고 2002년 이후에는 세계 주요국들과 FTA를 체결하면서 교역대상국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함.
- EU, 미국,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과의 FTA 체결은 농산물 수출에 특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 칠레의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수출 증이들 국가의 점유비율이 2002년 이전에는 20% 미만에 머물렀으나 2008년에는 무려 98%로 급등하였음⁶⁾.
 - 이러한 수출 증가를 위해 ProChile, DIRECON, Fondo de Promoción de Exportaciones Agropecuarias 등 관련 공공기관들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3. 향후 전망

□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2009년 농산물 수출은 소폭 감소할 전망**

- 2009년 상반기 중 과일 수출액은 21.3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2% 이상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제 과일 가격 하락, 칠레 폐소화의 강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전체 과일 수출의 30~40%를 차지하는 포도는 2009년 상반기 중 수출량이 전년동기 대비 2.9% 증가하였으나, 수출액은 6.7% 감소하였음.
- 와인의 경우는 2009년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총 수출량 및 수출액은 상승하였지만, 국제 가격 하락으로 리터 당 수입은 전년대비 10% 가량 축소될 전망이다.⁷⁾
 - 2009년 1~6월 중 와인의 수출량은 3억 2백만 리터로 전년동기의 2억 7천만 리터를 상회하였으나 수출액은 6.1억 달러로서 전년동기의 6.2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였음.

6) DIRECON, 2008년 3월 식품농수산업 보고서.

7) 칠레와인협회 회장 2009.10.15자 발언 및 협회 통계자료 참고.

- 국가별로도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량은 늘었지만, 총 수출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영국 : 수출액 -12.7%, 수출량 +12.5% (2009년 1~8월, 전년동기 대비)
- 캐나다 : 수출액 -8.9%, 수출량 +5.5% (2009년 1~8월, 전년동기 대비).

□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속될 듯

○ 정부는 농업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품종 개량, 농업 기술 교육, 농작 기계 수입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논의 중인 2010년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농업부문의 생산력 강화 프로그램에 1,714억 페소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는 농업 관련 총예산(3,649억 페소)의 47%에 해당하는 규모임.

○ 또한, 수출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농산품에 대한 품종 개발과 생산 인프라 구축 등 기존의 수출진흥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자유무역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 2010년 상반기부터는 국제시세 회복과 더불어 농업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주요 FTA 체결국 : 터키(2009년), 중국(서비스 부문)(2008년).
- 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국 :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투자 부문).

조사역 박현희 (☎ 02-3779-6676)

E-mail : sarapark@koreaexim.go.kr